

청년소상공인창업가의 창업동기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창업교육의 조절효과

허동현*, 오현주**

<요약>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소상공인창업가의 창업동기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때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실시한 2024년도 역량강화 교육에 참여한 소상공인 청년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의 초기창업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유효표본 289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창업동기의 하위변수인 기회동기, 성취동기, 독립동기가 창업의도에 각각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창업동기의 하위변수인 기회동기, 성취동기, 독립동기가 자기효능감에 각각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둘째, 창업동기와 자기효능감 사이 창업교육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 또한, 창업동기의 하위변수인 기회동기, 성취동기, 독립동기와 창업의도 사이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각각 유의하였다. 셋째, 창업동기와 창업의도 사이 창업교육에 의해 조절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기회동기, 성취동기, 독립동기 등 창업동기가 창업능력에 확신이 있는 자기효능감의 매개역할, 창업교육의 조절효과 등으로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청년소상공인창업가가 다양한 상황에서도 자신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중요함을 시사하며, 창업교육으로 아이디어의 탐색,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 등에 요구되는 사업철학, 사업전략 등 경영에 대한 과정의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향후 연구는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기업가정신이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영향을 주는 지 기업가정신의 매개역할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해 청년소상공인창업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학문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주제어> 청년소상공인창업가, 창업동기, 자기효능감, 창업교육, 창업의도

논문투고일 : 2025. 10. 30. 1차 수정일 : 2025. 11. 28. 게재확정일 : 2025. 12. 22.

* (주)선진이엔에스 대표이사, 경영학 박사, 제1저자 (ceodhheo@naver.com)

** 계명문화대학교 항공여행서비스과 교수, 경영학 박사, 교신저자 (ohj430@kmcu.ac.kr)

I. 서 론

세계경제는 구조나 기능 면에서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글로벌화된 경제활동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등 정보화 사회의 진행과 함께 진보적 과학기술이 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도 취직에 국한하지 않고 과학기술 및 그 인접 관련 창업을 통해 여러 형태로 확장돼 펼쳐지면서 유연화되면서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각 산업 분야에서 이뤄지는 창업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활동 등으로 국가 경제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Sobel and Hall 2008; Shane 2009), 일자리 창출에 공헌해 국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고 있다(Nayak et al. 2018).

소상공인은 자원을 동원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실물시장의 성장 원동력으로 풀뿌리 경제에서 중요하다(Mehrotra et al. 2018; 전덕영·윤병섭 2020). Rantanen(2013)은 창업을 사회 경쟁력, 국가 경제 및 지역 발전에 있어서 핵심요소이고 동시에 개인적 수준에서의 취업 수단이라 하였다. 이는 창업이 새로운 것의 고안 또는 새로운 방식을 개발하거나 적용해 시장에 공급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Bălăceanu and Apostol 2013). 소상공인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창업가가 지니는 창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도가 국가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소가 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창업 초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펼치는 정책이 여전히 미흡하다. 이는 창업기업의 성공 확률 제고를 위해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하지만 창업기업의 환경변화 등에 따른 여러 현상을 고려하면 여전히 청년창업 관련 연구는 미흡하다. 이에 따라 청년소상공인창업가 또는 창업 3년 미만의 초기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창업동기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는 것은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소상공인창업 관련 우리나라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책연구(최태환·윤병섭 2015; 김철민·정중영 2016; 표한형 2020; 정영수·황주성 2023), 사례연구(김양태 2015; 윤정호 외 2018; 김정훈·성열홍 2018), 실증연구(나상균·김태호 2014; 김기웅 외 2020; 허동현·윤병섭 2025)가 있다. 이는 소상공인이 경영기반을 강화하고 실패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연구 폭을 넓혀야 함을 보여준다. 청년창업가 또는 창업 3년 미만 초기 청년소상공인창업가에게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여 성공하는 창업 시사점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소상공인창업가의 창업동기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때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 창업동기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긍정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하여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창업가에게 지식과 노하우가 풍부한 성공하는 창업 방향을 제시하는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 결과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창업의도를 이루는 일련의 과정에서 창업동기를 바탕으로 하는 전략적 방향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긴다.

II. 청년소상공인창업과 창업지원제도

1. 청년창업의 의의

창업은 설정한 기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조직을 설립해 사업의 기초를 세우는 행위로써 신생 조직이 인적자원, 물적자원 등 경영자원을 활용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및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과 이의 부수된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최재성(2014)은 창업자를 불확실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혁신 활동을 통해 실제 기업을 지속시키고 성장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설립자 또는 소유주로 정의하였다. 대다수의 회사에서 CEO는 조직 활동과 기업 경영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체이다. CEO의 영향력은 상징적 권력과 공식적 권력에서 비롯된다. 특히 자신의 아이디어와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기업의 대표는 외부에서 영입한 전문경영인 보다 기업의 발전과 성공을 위하여 더욱더 헌신할 가능성이 높다(Saidu 2019).

Bălăceanu and Apostol(2013)은 창업에 대해 새로운 것이나 이미 존재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을 개발하거나 적용하는 행위라 하였다. Gartner et al.(1992)는 창업은 하나의 조직을 창조하는 과정이라 하였고, Rantanen(2013)은 사회 경쟁력, 국가 경제 및 지역 발전에 있어서 핵심요소이고 동시에 개인적 수준에서의 취업 수단이라고 하였다. 창업은 기본적으로 창의적이며 진취적이고 모험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백기동 2014).

청년창업은 젊은 세대가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미래의 기회를 포착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킨다. OECD에서의 청년층은 노동이 허용되는 연령대인 15세에서 일반적으로 대학 졸업 후 처음 입직하는 연령대를 포함하는 24세까지 10년간으로 본다(박천수 2013).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군입대 후 전역하여 경제활동을 시작하면 24세를 넘기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 29세까지 15년간을 청년층 노동시장으로 본다. 하지만 창업은 취업활동과 달리 각종 자원을 동원하고 상당한 경험과 판단을 요구하기 때문에 해당 연령층을 보다 더 폭넓게 볼 필요가 있다(양현봉·박종복 2011). 창업진흥원(<https://www.kised.or.kr>)에서 청년 기업인상을 수여할 때도 그 대상을 기업대표가 공고일 기준으로 39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연령제한을 두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2030 청년창업 프로젝트’,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http://2030.seoul.kr>)는 해당 연도 말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4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처럼 창업을 처음 경험하게 되는 연령대를 30대까지로 보는 등 창업 측면에서 청년기는 15세에서 39세까지로 여겨지고 있다. 즉, 경제활동 참여가 가능한 연령대(15세)에 도달한 후 상당한 직업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25년 동안을 청년창업의 시기로 보는 것이다.

2. 소상공인과 창업지원제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은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을 소상공인으로 본다. 따라서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 즉 업종에 맞는 상시 근로자 수를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의미한다. 이는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소상공인 여부를 알 수 있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3에 의한다. 그리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제조업은 중분류) 기준에 따른다. 또한, 자영업자는 근로자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이르며, 소상공인과 다른 개념이다. 소상공인 기준은 업종별 소기업 매출액 기준과 상시 근로자 수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그리고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 초기창업기업이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을 말한다. 예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말한다.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까지의 창업기업을 성장단계별로 구분하면 창업을 하려는 예비창업자,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초기창업자, 창업 3년 경과 7년 이내의 성장기 창업자로 나눌 수 있다.

창업하는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은 청년창업, 창업하는 대표자의 연령이 40세 이상인 창업은 중장년창업이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11항~13항). 창업하는 청년의 범위는 19~34세의 연령으로 볼 수 있다. 청년의 연령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와 경상북도는 청년 기준을 만 39세 이하로, 경상북도 문경, 의성 등 일부 지자체는 45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Ⅲ. 선행연구

1. 창업동기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변수의 관계

윤남수(2012)는 창업동기의 구성요인을 창업교육, 인적네트워크, 사회적 인식, 성취욕구 등으로 구분하고 창업의도 사이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는 독립변수 기업가정신, 창업동기와 종속변수 창업의도가 유효한 인과관계를 지닌다고 분석하면서 기업 또

는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창업 분위기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경희·김진영(2011)은 예비서비스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교육에서 학습프로그램에 대한 기업가정신이 창업동기에 따라 다르게 발현되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창업동기가 기술중심적 사고, 시장중심적 사고, 혁신적 사고, 경영관리적 사고 등 기업가정신에 각각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Carsrud and Brännback(2011)는 대개 창업가는 돈, 권력, 사회적 지위와 같은 외적인 성과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다고 하였다. 개인이 창업가적인 행동에 사로잡히게 되는 원인은 혁명이 아닌 자극으로부터 비롯된다. 창업가는 자극을 통해 창업의도를 갖게 되며, 이는 내적 및 외적 보상에 의한다. 내적으로는 실패를 성공할 가능성이라는 믿음으로 버티고 인지적 불협화를 최소화하며, 외적으로는 사회적 지위 및 권력, 그리고 눈에 보이는 금전이나 주식옵션 등의 보상이 동기를 부여한다(Carsrud and Brännback 2009). 반성식 외(2013)는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인 위험감수성과 혁신성 그리고 사업환경이 창업동기의 선행변수가 되며, 창업동기가 창업의도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Scheinberg and MacMillan(1988)은 11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창업동기 요인 관련 연구에서 창업의 6가지 핵심 동기가 동의, 창업자금, 자기개발, 독립동기, 위험회피, 공동체의 정도 등임을 보고하였다. 이런 연구결과는 Birley and Westhead(1994)의 영국 중소벤처기업의 창업동기 연구에서도 일관성 있게 지지되었다.

2. 자기효능감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변수의 관계

Wilson et al.(2007)은 창업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으로 창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강하며, 다양한 상황에서도 자신 있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감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McGee et al. 2009). 창업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에게 창업의도가 높게 나타났고(Wu and Wu 2008), 창업자기효능감은 창업의도를 높일 수 있는 변수로 많이 연구되고 있다(Krueger, Jr. et al. 2000; 조한준 외 2020; 정행로·양동우 2021). 정유선·정화영(2018)은 자기효능감을 개인이 처한 상황과 취하는 행동, 개인의 인지적 판단 등의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경험과 학습을 통해 습득한 자기효능감이 개인의 목표에 영향을 미친다. McGee et al.(2009)는 창업을 할 때 자기효능감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Zhao et al.(2005)는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제시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학습과 경험은 자기효능감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결국 개인의 창업의도를 높인다고 하였다.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창업의도가 높다는 주장이다. 김진욱(2013)은 실증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더 크고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더욱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며, 높은 성과를 통해 높은 보상을 기대하며, 주어진 제약 속에서도 추구할 가치가 있는 기회에 주목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보여주었다. 반면, 정병현(2015)은 자기효능감이 낮은 개인이 과업 초기에 난관이나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여 쉽게 포기하거나 최선이 아닌 결과에 만족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낮은 성과를 기대하여

결국 부정적인 보상을 예상하게 되며, 주어진 제약들을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인식함으로써 노력해도 이를 수 없을 것이라는 포기상태를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수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사업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위험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도전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들의 자기 확신에 따른 자발적인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이 필수적이다(황상규 2013). 또한 자기효능감의 이러한 특성들은 창업 프로세스에서 수없이 부딪치는 역경들을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돕는 요인이 되는데(Delmar and Shane 2003),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목표 달성을 높게 만드는 장애가 생기거나 자기의 과업 방식에 부정적인 의견이 발생하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자기 자신의 목표 달성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안승권 2016).

3. 창업교육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변수의 관계

창업교육은 사업 아이디어의 탐색,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창업과 관련된 지식을 전수함으로써 예비창업가들의 창업의도를 높이는 교육이다. Imel(1989)은 창업교육 수강자에게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게 하고 및 피고용자 입장에서 고용자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창업교육 수강자가 창업교육을 통해 직무수행에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일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교육내용도 체험형 학습이 이론형 학습보다 더 높은 창업의도를 자극하였다(김용태 2017). Timmons et al.(1987)은 창업을 위한 역량에 대하여 창업가가 본인의 학습활동을 통해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역량이 선천적으로 얻어지는 역량보다 많으므로 체계적인 창업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Timmons and Spinelli, Jr.(2008)는 대학생들에게 창업교육을 실시하면, 성공적인 벤처기업 수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창업교육은 모험심과 정열로 무엇인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업가정신을 심어주어 그 열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과정이다(박은주 2012). Hamidi et al.(2008)은 혁신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학의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이 더욱 높은 창업의 창업의도를 갖는다고 하면서 창업정신 또는 기업가정신을 가진 이들이 보다 창조적 기질이 강하다고 하였다. Bruno(1998)는 창업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경영, 회계에 관련된 다양한 지식, 자금의 흐름에 대한 지식, 고용 정책, 법적 지식 등 기업 경영 전반에 걸친 다양한 교육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김문성·이준우(2017)는 아이디어 도출교육과 사업화 전략교육을 제시하여, 실천적인 창업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해 만족도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Kraaijenbrink et al.(2010)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창업교육지원에서 창업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며 창업과 관련된 강좌나 워크숍, 학위 등을 제공하고 하나의 아이디어가 컨셉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돕고, 사업지원을 통하여 창업자 개인이 아닌 창업기업에 창업 후반에 필요한 자금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분류 하였다. 실습교육에서 멘토링도 창업교육의 범주안에 들어간다(Piperopoulos and Dimov 2015). Hallan et al.(2008)은 창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의 행동학적 이론들을 토대로 대학 내 창업활성화 모델을 개발하였는데, 이 모델에 의하면 대학 내 창업교육, 창업이벤트, 창업활동 등이 대학생 창업 활

성화에 일차적으로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이시우·이현수(2018)는 창업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꾸준히 창업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소상공인 정책은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적절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김춘근(2015)은 창업지원시스템이 기술창업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육, 인프라, 네트워크 등 창업지원시스템이 기술창업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밝혔다. 창업자의 기술적 역량과 조직적 역량은 기술창업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4. 독립변수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변수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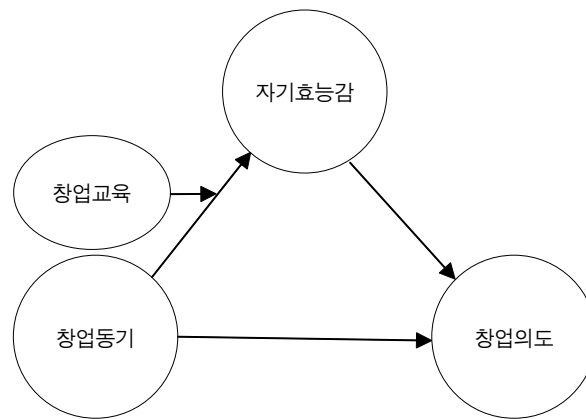
창업의도는 창업을 하는데 필요한 요소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Krueger, Jr.(1993)는 창업의도는 창업과정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개념으로서, 창업연구에서 개념적 또는 실증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왔다고 하였다. 의지는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창업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지우(2000)는 창업의도와 창업과의 관계는 사회심리학자들이 제시한 의도적인 행동모델에서 이론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다. 계획된 행동모델에 따르면 행동은 계획된 행동이고 인지적인 과정이며, 의지는 계획된 행동의 실행여부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고 설명하는 변수로 본다. 즉, 행동실행의 가능성은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지각된 행동통제력과 행동실행으로 지각된 주관적 규범, 행동에 대한 개인의 평가로서 태도에 영향을 받는 행동의지는 의사결정자의 주의를 목표행동에 집중시켜 그 사람의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변수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러한 창업의도는 창업과 관련된 행동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박시사·강성일(2007)은 실직이나 이민 등과 같은 개인의 중요한 생애 이벤트(life event)는 개인의 선택을 요구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대체안으로서 개인은 창업에 대해 지각하게 되고, 이는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어 결국에는 창업을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Katz and Gartner(1988)는 창업의도는 실질적인 창업 여부가 아니라 미래에 창업할 가능성에 관한 자신의 평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창업으로 가는 필수적인 단계라 할 수 있다. Krueger, Jr. and Carsrud(1993)는 창업의도는 창업과정의 핵심으로 개인의 창업 의사결정과 창업 행동의 선행요인으로 창업의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창업의도는 창업에 대한 의도적 행동이나 태도를 의미한다(김성희·엄기용 2018). 창업의도는 현재 창업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창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개인 역량의 판단 기준이다. 청년의 창업의도는 개인의 경제적 독립과 자기계발을 촉진하며, 혁신과 창의성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Ajzen 1991; Carter et al. 1996). 윤방섭(2004)은 개인특성 중에서 창업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창업의도에 가장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진주형·박병진(2014)은 개인적인 특성으로 위험감수성, 혁신성, 개인역량이 중요하며, 경력지향성에서는 자율지향, 기술지향, 사업지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교육, 예를 들어 창업강좌나 창업자문단, 창업한 졸업생의 네트워크 등도 창업의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유연호·양동우 2008; 정연수·조동환 2020). 이러한 요인들은 사업을 시작하려는 초기 단계에서 중요하다고 분석되고 있다(Krueger, Jr. and Brazeal 1994; 이정원 외 2013). Raijman(2001)은 일반적으로 창업자는 높은 성취욕구를 가지고 있고 위험감수자일 가능성이 많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같은 성향을 가진 개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창업에 대한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성취욕구와 창업 또는 창업의도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조사한 Krueger, Jr.(1993), 이지우(2000)의 연구를 통하여 창업이 창업의도와의 유의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Timmons and Spinelli, Jr.(2008)은 창업의도가 있고 창업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창업은 20대 후반과 30대 중반까지의 전문교육을 받은 혁신적인 사람들에게서 많이 성취된다고 하였다.

IV. 연구설계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소상공인창업가의 창업동기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때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다. 독립변수는 창업동기이며, 종속변수는 창업의도이다. 매개변수는 자기효능감, 조절변수는 창업교육이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가설

가. 창업동기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창업은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하여 이를 실현하는 것으로, 창업을 직접 행동으로 옮기려면 창업가 개인의 의지가 필요한데 이를 창업의도라 한다(이상길 2018). 창업의도는 자신의 사업을 소유하고자 하는 의지이며(Crant 1996), 새로운 기업 설립에 대한 행동, 철학, 태도를 나타낸다(Morris and Sexton 1996). 창업의도는 직장에 고용되는 형태가 아니라 사업 기회를 포착하여 실현하기 위해 계획된 의도이다(Krueger, Jr. et al. 2000). 창업의도는 미래에 개인이 자발적으로 창업을 선택하려는 계획이나 욕구와 같은 창업의 한 행동으로 새로운 창업에 대한 태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Tran and Von Korflesch 2016). 윤남수(2012)는 독립변수 기업이 정신, 창업동기와 종속변수 창업의도가 유효한 인과관계를 지닌다고 분석하면서 기업 또는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창업 분위기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Locke and Latham(2004), Carsrud et al.(2009), Carsrud and Brännback(2011), 김경희·김진영(2011), 윤남수(2012), 반성식 외(2013) 등은 창업동기의 하위변수로 기회동기, 성취동기, 독립동기를 채택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창업동기가 창업의도에 각각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가설 1] 창업동기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기회동기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성취동기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독립동기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 창업동기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자기효능감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일련의 행동들을 조직화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자기 확신을 의미한다(Bandura 1997). Boyd and Vozikis(1994)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도전에 두려움이 없으며, 어떠한 위험에도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자기효능감은 창업준비자들에게 창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심리적 특성으로 작용해 창업의도를 높일 수 있는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창업동기가 자기효능감에 각각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가설 2] 창업동기가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기회동기가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성취동기가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독립동기가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 창업동기와 자기효능감 사이 창업교육의 조절효과에 대한 가설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 사이의 관계에서 창업교육의 역할을 연구한 Shinnar et al.(2014)는 창업교육이 남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어 창업 프로그램 설계 시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이우진·김진수(2012)는 창업교육의 품질을 향상시켜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를 증가시키면 창업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충성도가 높아져 효능감이 증대되고 결국 창업의도의 증대로 연결된다고 하였다. Smith and Miner(1983)는 창업가의 심리특성과 배경특성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심리특성으로 성취욕구, 위험감수 성향, 통제지 소재 등과 배경특성으로 교육수준, 가족배경, 경험이라 하였다. 창업의도에 관하여 창업의도 결정요인을 개인특성요인과 심리적 특성요인, 환경요인 등에서 동기부여, 기술력, 비전과 목표수립 등으로 창업교육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김성순 2009). 박시사·강성일(2007)은 심리적 특성요인 중 자기효능감과 내적 통제요소가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예측변수 중 심리적 특성요인의 상대적 중요성과 인적자본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고, 이는 행동의 선행변수이며 규범, 태도, 지각된 타당성의 결과변수로서 행동을 조절하는 역할로 의지를 강조한 합리적 기대모형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유연호·양동우(2008)는 개인적 특성인 경력 지향성의 유형과 사회문화적인 요인, 창업지원프로그램 참여의사를 통해 창업동기부여와 창업의도를 높인다고 보았다. Ferreira et al.(2012)에 의하면, 창업의도 결정요인은 자기신뢰, 혁신성, 성취욕구, 위험에 대한 인식 또는 위험감수성, 통제에 대한 내적 인식, 불확실성에 대한 수용 등이 제시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창업동기와 자기효능감 사이 창업교육의 조절효과에 대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가설 3] 창업동기와 자기효능감 사이 창업교육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3-1] 기회동기와 자기효능감 사이 창업교육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3-2] 성취동기와 자기효능감 사이 창업교육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3-3] 독립동기와 자기효능감 사이 창업교육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 창업동기와 창업의도 사이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가설

자기효능감은 특정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자신감, 신념을 가리킨다(Bandura 1997).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인지이론에서 제시한 자기인식의 개념에서 나온 것으로 사회적 맥락, 관찰, 행동의 모방을 강조하는 개념이다(Bandura 1997; 2006). Zhao et al.(2005)는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제시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학습과 경험은 자기효능감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결국 개인의 창업의도를 높인다고 하였다.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창업의도가 높다는 주장이다.

McGee et al.(2009)는 창업을 할 때 자기효능감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Mathieu et al.(1992)는 교육 후 자기효능감이 직무성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므로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창업동기와 창업의도 사이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가설 4] 창업동기와 창업의도 사이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4-1] 기회동기와 창업의도 사이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4-2] 성취동기와 창업의도 사이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4-3] 독립동기와 창업의도 사이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마. 창업동기와 창업의도 사이 창업교육에 의해 조절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창업동기와 창업의도 사이 창업교육에 의해 조절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가설 5] 창업동기와 창업의도 사이 창업교육에 의해 조절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5-1] 기회동기와 창업의도 사이 창업교육에 의해 조절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5-2] 성취동기와 창업의도 사이 창업교육에 의해 조절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5-3] 독립동기와 창업의도 사이 창업교육에 의해 조절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가. 독립변수: 창업동기

Locke and Latham(2004), Carsrud and Brännback(2009; 2011), 윤남수(2012) 등은 창업동기의 하위변수로 기회동기, 성취동기, 독립동기를 채택하였다. 본 연구는 이들이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참조하여 각 하위변수로 5문항을 측정항목으로 설문한다.

(1) 기회동기

기회를 인식한 사람은 고용인으로부터 더 많은 옵션과 혜택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창업가를 선택한다(Hay 2002). 본 연구는 기회동기를 창업가가 창업하는 기회를 알아보고 기회를 포착해 실천으로 옮기는 것으로 조작적 정의하고 다음 5문항을 측정항목으로 설문한다. 설문내용은 ① 현재하고 있는 직무에 만족을 하지 못해 창업을 하는지, ② 창업을 하면 내게

좋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생각하는지, ③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므로 창업을 할 것 같은지, ④ 창업을 할 경우에 주위의 권유가 많을 것 같은지, ⑤ 과거에 비하여 창업 여건이 좋아졌기에 창업을 할 것 같은지 등이다.

(2) 성취동기

창업가의 목표는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궁금함 또는 도전정신을 지니며, 목표달성을 위해 성취성과 같은 동기부여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성취동기를 창업가들이 원하는 것 또는 필요한 것을 성취하기 위한 동기부여로 조작적 정의하고 다음 5문항을 측정항목으로 설문한다. 설문내용은 ① 자유로운 직장생활을 위해 창업을 하는 것인지, ② 기존의 소득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고 싶어서인지, ③ 창업하면 시간에 대한 융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④ 자신의 통제력을 기반으로 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창업이라고 생각하는지, ⑤ 창업하면 성취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이다.

(3) 독립동기

Birley and Westhead(1994)는 영국 중소기업의 창업동기 연구에서 일관성 있게 지지 결과를 밝혔다. 본 연구는 독립동기를 누구의 지시를 받기보다는 자신 스스로, 독자적으로 자기 일과 생활을 수행하려 하는 욕구로 조작적 정의하고 다음 5문항을 측정항목으로 설문한다. 설문내용은 ① 창업을 통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을 것인지, ② 창업으로 나의 기업을 큰 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 ③ 창업을 하면 좋아하는 일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④ 창업으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것인지, ⑤ 창업을 통하여 내가 속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이다.

나. 매개변수: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기술이나 지식 또는 경험을 적절하게 조직화할 수 있다는 자기 능력에 대한 신념을 말한다(김문성·박성철 2011). 본 연구는 자기효능감을 부딪치는 문제로 역량에 한계를 느끼거나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낙관적 창업환경으로 만드는 믿음과 진취적 사고로 조작적 정의한다. 자기효능감은 Chen et al.(2001), Gibb(2007), 강재학(2016), 안태욱(2017), 김상수(2018), 이정하(2024) 등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참조하여 5문항을 측정항목으로 설문한다. 설문내용은 ① 창업을 할 때 부딪치는 여러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창업목표 성취감이 고취되어 있는지, ② 창업을 할 때 한 번 마음먹은 일을 끝까지 하는데 주저하지 않는지, ③ 창업을 할 때 불확실성과 위험상황이 오더라도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지, ④ 창업을 할 때 창업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지, ⑤ 창업을 할 때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등이다.

다. 조절변수: 창업교육

창업교육은 사업을 시작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영지식, 기술지식, 기능, 태

도, 가치관, 기업가정신 함양 등을 가르치는 활동이다(정유선·정화영 2018). 창업교육의 목표는 일반적인 경영교육과 달리 기업가적 태도 및 마인드를 함양하는 것이다(Kuratko 2005). 본 연구는 창업교육을 미래 비즈니스 준비가 가능하도록 교과목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가르치는 교육으로 조작적 정의한다. 창업교육은 Hmieleski and Corbett(2006), Walter and Block(2016), 이해진·김진수(2019), 한가록 외(2021) 등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참조하여 5 문항을 측정항목으로 설문한다. 설문내용은 ① 창업교육으로 사회 속에서 기업가의 역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는지, ② 창업교육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알려주었는지, ③ 창업교육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이 실제 창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④ 창업교육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이 실제 창업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정보로 제공되고 있음을 알고 있는지, ⑤ 창업교육을 통하여 창업에 필요한 사업운영 및 사업계획에 도움을 받았는지 등이다.

라. 종속변수: 창업의도

창업의도는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하여 이를 실현하려는 행동, 철학, 태도를 나타내는 창업가 개인의 의지이다. 본 연구는 창업의도를 개인이 창업을 실현하려는 행동, 철학, 태도 등으로 표출하는 동기적 행동성향의 가능성 정도로 조작적 정의한다. 창업의도는 Bird(1988), 윤백중(2012), 박지유(2014) 등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참조하여 5문항을 측정항목으로 설문한다. 설문내용은 ① 창업을 위해 관련된 학습이나 계획을 준비할 수 있는지, ② 지식이나 경력을 살려서 창업을 하고 싶은지, ③ 관심이 있고 지속가능한 분야에 창업하고 싶은지, ④ 좋아하고 잘하며 즐길 수 있는 일에 창업하고 싶은지, ⑤ 창업을 해서 성공한 청년창업가가 되고 싶은지 등이다.

마. 통제변수

(1) 성별

Shinnar et al.(2014)는 남학생의 경우에는 창업교육이 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밝혔으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프로그램을 창업 프로그램 설계 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Kalleberg and Leicht(1991)는 실증분석을 통해 생존율과 성공가능성에서 여성과 남성 사이 기업경영 성과에 차이가 없음을 주장한다. 본 연구는 청년창업가의 성별을 남성 1, 여성 0으로 하는 더미변수를 사용한다.

(2) 연령

누구나 창업하면 창업가가 될 수 있어 창업가의 연령은 20대부터 70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활력 넘치고 패기 있으며, 경험을 지닌 연령대는 30대부터 40대에 분포하고 그 비중이 크다. 창업에 대한 심리적 인식과 위험 수용도가 뛰어난 젊은 세대가 창업행동 반경이 넓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19세

에서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와 경상북도는 청년 기준을 만 39세 이하로, 경상북도 문경, 의성 등 일부 지자체는 45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청년창업가의 연령을 ① 19~24세, ② 25~29세, ③ 30~34세, ④ 35~39세, ⑤ 40~45세로 구분한다.

(3) 학력

Cooper and Gimeno-Gascón(1992), Cooper et al.(1994) 등은 학력이 높을수록 창업 및 경영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보다 쉽게 극복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Cooper(1985), Sandberg and Hofer(1987) 등은 창업자의 학력이 경영성과와 음(-)의 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주장했다. 본 연구는 청년창업가의 학력을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전문대학(2-3년제) 졸업, ③ 대학교(4년제) 졸업 이상, ④ 석사, ⑤ 박사로 구분하였다. 중퇴자 또는 과정 중인 자는 최종졸업 기준이다.

<표 1> 설문지의 조작적 정의

변수			문항수	조작적 정의	선행연구
독립 변수	창업 동기	기회동기	5	창업가가 창업하는 기회를 알아보고 기회를 포착해 실천으로 옮기는 것	Hay(2002), Locke and Latham (2004), Carsrud and Brännback (2009; 2011), 윤남수(2012), 반성식 외(2013)
		성취동기	5	창업가들이 원하는 것 또는 필요한 것을 성취하기 위한 동기부여	
		독립동기	5	누구의 지시를 받기보다는 자신 스스로, 독자적으로 자기 일과 생활을 수행하려 하는 욕구	
매개 변수	자기효능감		5	부딪치는 문제로 역량에 한계를 느끼나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낙관적 창업환경으로 만드는 믿음과 진취적 사고	Chen et al.(2001), Gibb(2007), Shane et al.(2003), 강제학(2016), 안태욱(2017), 김상수(2018), 이정하(2024)
조절 변수	창업교육		5	미래의 비즈니스를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이론적 지식, 실무적 자질과 태도 등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교과목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가르치는 교육	Hmielecki and Corbett(2006), 김정인·이일한(2014), Walter and Block(2016), 이혜진·김진수(2019), 한가록 외(2021)
종속 변수	창업의도		5	창업의도를 개인이 창업을 실현하려는 행동, 철학, 태도 등으로 표출하는 동기적 행동성향의 가능성 정도로 조작적 정의	Bird(1988), 윤백중(2012), 박지유(2014)
통제 변수	일반문항		5	성별, 연령, 학력, 업종, 종업원 수	
설문 문항 수			35		

(4) 업종

창업자는 경험을 통해 업종을 이해하고 업종의 문제점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Brockhaus 1982). Rees and Shah(1986)는 소상공인 소득이 근로자 소득을 상회하는 경우에 소상공인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윤숙·문성욱(2016)은 음식점업, 소매업은 창업점유율이 높지만 창업 3년 후의 생존율은 낮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청년창업가의 업종을 ① 제조업, ② 도·소매업, ③ 서비스업, ④ 정보통신업, ⑤ 숙박, 음식점업 중 응답자가 관심을 가지는 창업 업종을 질문하였다.

(5) 종업원 수

소상공인의 경우 전체 인력이 적기 때문에 핵심인재 활용으로 인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대기업에 비해 더욱 명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종업원 수를 ① 1명~3명, ② 4명~5명, ③ 6명~7명, ④ 7명~9명으로 분류하고 이를 설문하였다. 소상공인 업종의 종업원 수를 보면 제조업은 10인 미만이며, 도·소매업,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숙박·음식점업은 5인 미만 사업체이다.

4. 연구대상과 자료수집

가. 연구대상과 설문지의 구성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은 서울시 예비창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생애주기별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대상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2024년도 청년예비창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프라인에서 기업생애주기별 역량 강화 교육을 할 때 교육받은 소상공인 청년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의 초기창업가이다. 본 연구 설문지의 구성항목은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운 연구가설이 도입한 창업동기, 기업가정신, 자기효능감, 창업교육, 창업의도 등의 변수를 연구목적에 맞게 조작적 정의한 것이다. 설문지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나. 자료수집

본 연구자료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2024년도 청년예비창업가, 즉 오프라인 교육을 수강한 소상공인 청년예비창업가 또는 소상공인 창업 3년 미만의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이다. 교육과정을 마치고 실질적 창업 의사가 있는 청년예비창업가, 창업 3년 이내 청년창업가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수료 시점에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V. 실증분석

1. 기술통계량

<표 2>는 빈도분석한 결과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2024년도 청년예비창업가 또는 소상공인 창업 3년 미만의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개설한 소상공인 청년예비창업가 교육생으로부터 수집한 자료이다. 설문조사의 본 조사는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설문지 400부를 배포하고 312부를 회수하여 289부를 최종 연구대상인 유효표본으로 확정하였다.

<표 2> 기술통계량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성별	남성	208	71.97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52	17.99
	여성	81	28.03		전문대 졸업(2~3년제)	81	28.03
연령	19세~24세	52	17.99		대학 졸업(4년제)	110	38.06
	25세~29세	86	29.76		석사	29	10.04
	30세~34세	65	22.49		박사	17	5.88
	35세~39세	52	17.99	업종	제조업	32	11.07
	40세~45세	34	11.77		도·소매업	72	24.91
종업원 수	1명~3명	125	43.25		서비스업	90	31.14
	4명~5명	104	35.99		정보통신업(ICT)	46	15.92
	5명~7명	37	12.80		숙박·음식점업	49	16.96
	7명~9명	23	7.96		합계	289	100.0

2. 측정모형 검증

가. 신뢰성 분석

본 연구는 측정문항 사이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이 유지되는지 신뢰계수(cronbach's alpha coefficient)를 이용하여 신뢰성을 분석한다. 신뢰성 검증 결과는 <표 3>과 같다. Nunnally and Bernstein(1994)는 신뢰계수가 .70 이상이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신뢰계수가 .70 이하인 측정항목 1개를 제거하고 신뢰성을 검증한 결과 .7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측정도구의 개념이 타당함, 즉 내적일관성을 확보하였다.

<표 3> 신뢰성 분석 및 설문지 최종 문항

변수			초기 문항수	제거 문항수	문항 제거후 신뢰성	최종 문항수 및 문항번호		
						문항수	부	문항번호(변수항목번호)
독립변수	창업동기	기회동기	5		.878	5	I	1~5
		성취동기	5	1	.823	4		6~7, 9~10
		독립동기	5		.839	5		11~15
매개변수	자기효능감		5		.854	5	Ⅱ	1~5
조절변수	창업교육		5		.804	5	Ⅲ	1~5
종속변수	창업의도		5		.819	5	Ⅳ	1~5
계			30	1		29		

나. 타당성 분석

(1) 요인분석

신뢰성 분석은 측정항목 사이 내적일관성이 확보되었는지 검증하지만, 타당성 분석은 집

중화 경향의 확인과 변수 사이 구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추출한 값, 공통성이 1에 근접하면 각 요인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50 이하의 설문항목은 설문구성에서 제외한다. 요인추출은 주성분분석 방식을 사용하며 요인회전은 요인들 간의 상호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용한 Varimax 직각회전(orthogonal rotation) 방식을 이용한다.

<표 4> 독립변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공통성(communality)이 .50 이상으로 나타나 동일한 개념이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설명된 총분산(variance), 즉 각 요인이 설명하는 변수(측정문항)의 분산 총합으로의 초기 고유값(eigenvalue), 즉 요인이 설명하는 분산의 양은 1.0 이상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표 4> 탐색적 요인분석

문항	창업동기			자기 효능감	창업 교육	창업 의도	공통성
	기회동기	성취동기	독립동기				
기회동기 1	.921	.284	.317	.102	.056	.102	.682
기회동기 3	.912	.371	.256	.101	.056	.101	.594
기회동기 2	.914	.263	.244	.101	.056	.101	.566
기회동기 5	.978	.286	.364	.108	.059	.108	.604
기회동기 4	.976	.301	.336	.108	.059	.108	.611
성취동기 6	.232	.947	.222	.084	.047	.084	.618
성취동기 9	.277	.944	.187	.100	.058	.100	.610
성취동기 7	.277	.913	.256	.042	.026	.042	.585
성취동기 10	.328	.967	.227	.106	.059	.106	.593
독립동기 11	.216	.171	.933	.115	.063	.115	.661
독립동기 13	.210	.157	.930	.110	.058	.110	.577
독립동기 12	.287	.134	.926	.153	.084	.152	.567
독립동기 14	.263	.152	.924	.137	.073	.136	.595
독립동기 15	.207	.198	.863	.110	.058	.110	.584
자기효능감1	.221	.168	.406	.987	.093	.066	.677
자기효능감2	.189	.151	.113	.955	.173	.167	.633
자기효능감4	.148	.120	.088	.935	.134	.129	.659
자기효능감3	.132	.107	.079	.933	.121	.116	.645
자기효능감5	.078	.062	.046	.912	.199	.192	.636
창업교육 1	.581	.271	.275	.043	.982	.033	.516
창업교육 2	.531	.306	.327	.040	.979	.029	.520
창업교육 3	.418	.401	.682	.031	.916	.023	.571
창업교육 4	.376	.413	.224	.028	.950	.021	.668
창업교육 5	.495	.455	.201	.037	.919	.028	.523
창업의도 1	.187	.149	.112	.157	.129	.976	.699
창업의도 5	.187	.149	.111	.157	.128	.969	.697
창업의도 2	.184	.148	.110	.155	.127	.957	.591
창업의도 3	.178	.143	.107	.151	.124	.951	.582
창업의도 4	.166	.132	.099	.140	.114	.945	.560
고유값	2.375	2.355	2.440	2.541	2.304	2.215	
설명분산율	22.080	20.821	9.710	8.658	7.412	6.804	
누적분산율	22.080	42.901	52.611	61.269	68.681	75.485	

(2) 확인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한 이후 다 항목으로 구성된 연구 개념 등에 대해 단일차원성을 검증하는 방법이다. 관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뜻한다. KMO(Kaiser-Meyer-Olkin)는 값이 .90 이상이어야 한다. <표 5>의 KMO 값은 .903으로서 변수 사이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어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선택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바르레트(Bartlett) 검정은 유의 확률로 판단하는데 귀무가설이 기각되어야 요인분석 모형을 사용할 수 있다. <표 5>의 구형성검정치(χ^2)가 468.981이며 유의확률(p) 값이 .000이므로 공통요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요인에 관한 설문 문항들이 타당하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요인에 대한 이론적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는 양호하다.

<표 5>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지수

구분	KMO	Bartlett검정		RMSEA	Q값	NFI	IFI	TLI	CFI	GFI
		χ^2	df							
모형의 적합도 평가	.903	879.285 (p=.000)	428	.028	1.402	.975	.992	.958	.991	.981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은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을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AVE 값이 .50 이상이면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이 있다고 평가되며, 해당 잠재변수가 자신의 하위구성개념을 잘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보면 측정항목과 해당요인을 연결하는 표준화된 적재치와 연구단위에 의해 분산이 설명된 양을 측정하는 AVE 역시 모든 변수에서 .50 이상으로 집중타당성이 확보되었다. 동일분산편의(common method bias)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One-Factor Analysis of Variance(ANOVA)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동일분산편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표 6>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측정항목이 분석에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즉 경로계수에서 유의한 $p < .01$ 값을 나타내고 있다.

<표 6>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항목		변수	표준화계수	S.E.	C.R.	SMC	P	AVE
기회동기 1	←	기회동기	.800			.601		.712
기회동기 3	←	기회동기	.809	.062	19.832	.635	***	
기회동기 2	←	기회동기	.721	.051	16.825	.561	***	
기회동기 5	←	기회동기	.728	.047	19.035	.571	***	
기회동기 4	←	기회동기	.616	.050	23.383	.590	***	
성취동기 6	←	성취동기	.638			.660		.688
성취동기 9	←	성취동기	.632	.079	16.284	.547	***	
성취동기 7	←	성취동기	.709	.075	14.512	.488	***	
성취동기 10	←	성취동기	.808	.074	26.317	.635	***	

청년소상공인창업가의 창업동기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동기 11	←	독립동기	.748			.703		.684
독립동기 13	←	독립동기	.791	.072	24.870	.608	***	
독립동기 12	←	독립동기	.638	.067	19.967	.634	***	
독립동기 14	←	독립동기	.727	.066	17.534	.570	***	
독립동기 15	←	독립동기	.712	.062	16.303	.643	***	
자기효능감 1	←	자기효능감	.693			.645		.638
자기효능감 2	←	자기효능감	.653	.053	24.647	.713	***	
자기효능감 4	←	자기효능감	.705	.051	19.291	.802	***	
자기효능감 3	←	자기효능감	.809	.061	19.963	.635	***	
자기효능감 5	←	자기효능감	.814	.062	19.476	.678	***	
창업교육 1	←	창업교육	.659			.762		.701
창업교육 2	←	창업교육	.765	.049	21.225	.687	***	
창업교육 3	←	창업교육	.791	.038	21.744	.761	***	
창업교육 4	←	창업교육	.783	.040	20.998	.596	***	
창업교육 5	←	창업교육	.726	.043	19.777	.539	***	
창업의도 1	←	창업의도	.636			.723		.691
창업의도 5	←	창업의도	.659	.058	22.321	.739	***	
창업의도 2	←	창업의도	.691	.046	23.584	.705	***	
창업의도 3	←	창업의도	.706	.086	20.447	.727	***	
창업의도 4	←	창업의도	.792	.093	17.270	.772	***	

주) *** p<.01.

3. 상관분석

본 연구는 단일차원성이 검증된 변수의 상호 관계가 어떤 방향이며, 어느 정도 관계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표 7>과 같이 상관분석 결과 기회동기와 성취동기, 성취동기와 독립동기 사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한편, 각 변수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은 분산확대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로 알 수 있다. VIF 값이 2.483~3.644의 구간에 있어 낮은 수준이므로 다중공선성은 나타나지 않아 본 연구의 타당성을 입증한다.

<표 7> 상관분석

변수		1	2	3	4	5	6	VIF
창업 동기	1. 기회동기	1						
	2. 성취동기	.375***	1					3.259
	3. 독립동기	.104	.316***	1				3.644
4. 자기효능감		.126	.124	.139	1			2.622
5. 창업교육		.159	.169*	.186*	.275**	1		2.578
6. 창업의도		.148	.182*	.165*	.186*	.193*	1	3.387

주) *** p<.01, ** p<.05, * p<.10

4. 가설검증

가. 창업동기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창업동기의 하위변수인 기회동기, 성취동기, 독립동기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표 8>과 같이 창업동기의 각 하위변수가 창업의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가설 1-1] “기회동기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성취동기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독립동기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채택되어 [가설 1] “창업동기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된다.

<표 8> 창업동기가 창업의도,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변수		종속변수					
		창업의도			자기효능감		
창업동기	기회동기	.320*** (3.239)			.318*** (3.223)		
	성취동기		.315*** (3.182)			.313*** (3.166)	
	독립동기			.313** (3.040)			.311** (3.025)
성별 (남성=1)		.087 (.880)	.088 (.889)	.088 (.855)	.086 (.875)	.087 (.884)	.087 (.850)
연령 (25세~29세=1)		.200* (2.026)	.198* (2.002)	.194* (1.887)	.199* (2.016)	.197* (1.992)	.193* (1.878)
학력 (4년제 대졸=1)		.143 (1.453)	.147 (1.491)	.146 (1.425)	.143 (1.446)	.147 (1.484)	.146 (1.417)
업종 (서비스업=1)		.166* (1.678)	.164* (1.662)	.170* (1.650)	.165* (1.670)	.164* (1.654)	.169* (1.642)
종업원 수 (1명~3명=1)		.079 (.798)	.084 (.848)	.077 (.749)	.078 (.794)	.083 (.844)	.077 (.745)
상수		3.298	3.362	3.360	3.282	3.345	3.344
R ²		.428	.438	.435	.426	.436	.433
Adj R ²		.390	.398	.399	.388	.396	.397
F-value (유의확률)		5.801 (.000)	5.847 (.000)	5.813 (.000)	5.772 (.000)	5.818 (.000)	5.785 (.000)

주) *** p<.01, ** p<.05, * p<.10

조혜덕·조성제(2025)는 창업동기의 하위요인인 기회동기, 성취동기, 독립동기가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했다. 이에 본 연구결과는 조혜덕·조성제(2025) 등과 일치하는 연구결과임을 입증할 수 있다. 창업동기는 자기결정이론(Ryan and Deci 2000)에 기반해 자신이 원하고 필요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 주어지는 동기를 새로운 모험(Carsrud and Brännback 2011)으로 도전해 창업을 활성화한다. 창업동기가 기술기반이 제공되는 젊은 소상공인에게 창업 욕구나 창업의도를 발현시켜 성공적인 창업이 되도록 창업을 장려함으로써 창업의도를 키운다고 판단할 수 있다. 창업하는 기회를 포착해 창업의도를 발현시킨다.

나. 창업동기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본 연구에서 창업동기의 하위변수인 기회동기, 성취동기, 독립동기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표 8>과 같이 창업동기의 각 하위변수가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며,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인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창업의도를 완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는 예비청년창업가(19~39세)의 창업동기가 창업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힌 선량·허철무(2019)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가설 2-1] “기회동기가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성취동기가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독립동기가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채택되어 [가설 2] “창업동기가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된다.

다. 창업동기와 자기효능감 사이 창업교육의 조절효과 분석

본 연구는 창업동기와 자기효능감 사이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표 9> 창업동기와 자기효능감 사이 창업교육의 조절효과 분석

변수		종속변수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창업 동기	기회동기	.318*** (3.223)	.321*** (3.255)	.325*** (3.288)						
	성취동기				.313*** (3.166)	.316*** (3.198)	.319*** (3.229)			
	독립동기							.311** (3.025)	.314** (3.055)	.317** (3.085)
창업교육			.295** (2.992)	.298** (3.022)		.291** (2.946)	.294** (2.975)		.288** (2.804)	.291** (2.832)
상호 작용	기회동기 *창업교육			.288** (2.918)						
	성취동기 *창업교육						.278** (2.809)			
	독립동기 *창업교육									.268** (2.602)
성별 (남성=1)		.086 (.875)	.087 (.884)	.088 (.893)	.087 (.884)	.088 (.893)	.089 (.902)	.087 (.850)	.088 (.859)	.089 (.867)
연령 (25세~29세=1)		.199* (2.016)	.201* (2.036)	.203* (2.056)	.197* (1.992)	.199* (2.012)	.201* (2.032)	.193* (1.878)	.195* (1.896)	.197* (1.915)
학력 (4년제 대졸=1)		.143 (1.446)	.144 (1.460)	.146 (1.475)	.147 (1.484)	.148 (1.499)	.150* (1.514)	.146 (1.417)	.147 (1.432)	.149 (1.446)
업종 (서비스업=1)		.165* (1.670)	.167* (1.687)	.168* (1.704)	.164* (1.654)	.165* (1.670)	.167* (1.687)	.169* (1.642)	.171* (1.659)	.172* (1.675)
종업원 수 (1명~3명=1)		.078 (.794)	.079 (.802)	.080 (.810)	.083 (.844)	.084 (.852)	.085 (.861)	.077 (.745)	.077 (.753)	.078 (.760)
상수		3.282	3.315	3.348	3.345	3.379	3.412	3.344	3.377	3.411
R ²		.426	.430	.434	.436	.440	.444	.433	.437	.441
Adj R ²		.388	.392	.396	.396	.400	.404	.397	.401	.405
F-value (유의확률)		5.772 (.000)	5.830 (.000)	5.888 (.000)	5.818 (.000)	5.876 (.000)	5.935 (.000)	5.785 (.000)	5.842 (.000)	5.900 (.000)

주) *** p<.01, ** p<.05, * p<.10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창업동기(기회동기, 성취동기, 독립동기)와 자기효능감 사이 창업교육의 조절효과가 각각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 3-1] “기회동기와 자기효능감 사이 창업교육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3-2] “성취동기와 자기효능감 사이 창업교육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3-3] “독립동기와 자기효능감 사이 창업교육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가 채택되어 [가설 3] “창업동기와 자기효능감 사이 창업교육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는 채택된다. 박시사·강성일(2007)은 심리적 특성요인 중 자기효능감과 내적 통제요소가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양준환·김춘광(2020)은 창업교육이 매개변수인 창업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였다. 김철훈·윤병섭(2024)은 창업기회인식이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창업교육서비스품질과 창업의도 사이 자기효능감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박시사·강성일(2007), Shinnar et al.(2014), 양준환·김춘광(2020), 김철훈·윤병섭(2024) 등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라. 창업동기와 창업의도 사이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

본 연구는 창업동기(기회동기, 성취동기, 독립동기)와 창업의도 사이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각각 유의함을 <표 10>과 같이 밝혔다. 따라서 [가설 4-1] “기회동기와 창업의도 사이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4-2] “성취동기와 창업의도 사이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4-3] “독립동기와 창업의도 사이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가 채택되어 [가설 4] “창업동기와 창업의도 사이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는 채택된다. McGee et al.(2009)는 창업을 할 때 자기효능감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Zhao et al.(2005)는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제시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학습과 경험은 자기효능감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결국 개인의 창업의도를 높인다고 하였다.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창업의도가 높다는 주장이다. 본 연구는 Zhao et al.(2005), McGee et al.(2009) 등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표 10> 창업동기와 창업의도 사이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

변수		종속변수(자기효능감)								
		자기 효능감	창업 의도	창업 의도	자기 효능감	창업 의도	창업 의도	자기 효능감	창업 의도	창업 의도
창업 동기	기회 동기	.318*** (3.223)	.320*** (3.239)	.321*** (3.249)						
	성취 동기				.313*** (3.166)	.315*** (3.182)	.316*** (3.191)			
	독립 동기							.311** (3.025)	.313** (3.040)	.313** (3.049)
자기효능감				.299** (3.027)			.302** (3.053)			.299** (2.907)
성별 (남성=1)		.086 (.875)	.087 (.880)	.087 (.882)	.087 (.884)	.088 (.889)	.088 (.891)	.087 (.850)	.088 (.855)	.088 (.857)
연령 (25세~29세=1)		.199* (2.016)	.200* (2.026)	.201* (2.032)	.197* (1.992)	.198* (2.002)	.199* (2.008)	.193* (1.878)	.194* (1.887)	.195* (1.893)

학력 (4년제 대졸=1)	.143 (1.446)	.143 (1.453)	.144 (1.457)	.147 (1.484)	.147 (1.491)	.148 (1.496)	.146 (1.417)	.146 (1.425)	.147 (1.429)
업종 (서비스업=1)	.165* (1.670)	.166* (1.678)	.166* (1.683)	.164* (1.654)	.164* (1.662)	.165* (1.667)	.169* (1.642)	.170* (1.650)	.170* (1.655)
종업원 수 (1명~3명=1)	.078 (.794)	.079 (.798)	.079 (.800)	.083 (.844)	.084 (.848)	.084 (.850)	.077 (.745)	.077 (.749)	.077 (.751)
상수	3.282	3.298	3.308	3.345	3.362	3.372	3.344	3.360	3.371
R ²	.426	.428	.429	.436	.438	.439	.433	.435	.436
Adj R ²	.388	.390	.391	.396	.398	.399	.397	.399	.400
F-value (유의확률)	5.772 (.000)	5.801 (.000)	5.819 (.000)	5.818 (.000)	5.847 (.000)	5.865 (.000)	5.785 (.000)	5.813 (.000)	5.831 (.000)

주) *** p<.01, ** p<.05, * p<.10

마. 창업교육에 의해 조절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

본 연구는 창업동기와 창업의도 사이 창업교육에 의해 조절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창업동기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때 창업교육에 의해 조절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 Model 4(Hayes, 2013)를 이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Baron and Kenny 1986)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1>과 같이 창업동기(기회 동기, 성취동기, 독립동기)와 창업의도 사이 창업교육에 의해 조절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각각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 5-1] “기회동기와 창업의도 사이 창업교육에 의해 조절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5-2] “성취동기와 창업의도 사이 창업교육에 의해 조절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5-3] “독립동기와 창업의도 사이 창업교육에 의해 조절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가 채택되어 [가설 5] “창업동기와 창업의도 사이 창업교육에 의해 조절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는 채택된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어떠한 위협에도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Boyd and Vozikis, 1994) 창업의도를 높일 수 있다(Krueger, Jr. et al. 2000; 조한준 외 2020; 정행로·양동우 2021). 자기효능감의 선행변수로 Newman et al.(2019)은 창업교육을 들고 있으며, 결과변수로 Bagheri and Pihie(2014), Austin and Nauta(2016) 등은 창업의도를 들고 있다.

<표 11> 창업동기와 창업의도 사이 창업교육에 의해 조절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

변수		종속변수(창업교육에 의해 조절된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자기 효능감	창업 의도	창업 의도	자기 효능감	창업 의도	창업 의도	자기 효능감	창업 의도	창업 의도
창업 동기	기회 동기	.318*** (3.223)	.320*** (3.239)	.321*** (3.329)						
	성취 동기				.313*** (3.166)	.315*** (3.182)	.318** (3.193)			
	독립 동기							.311** (3.025)	.313** (3.040)	.317** (3.085)
창업교육에 의해 조절된 자기효능감				.270** (2.630)			.273** (2.656)			.276** (2.682)

성별 (남성=1)	.086 (.875)	.087 (.880)	.087 (.850)	.087 (.884)	.088 (.889)	.088 (.859)	.087 (.850)	.088 (.855)	.089 (.867)
연령 (25세~29세=1)	.199* (2.016)	.200* (2.026)	.193* (1.878)	.197* (1.992)	.198* (2.002)	.195* (1.896)	.193* (1.878)	.194* (1.887)	.197* (1.915)
학력 (4년제 대졸=1)	.143 (1.446)	.143 (1.453)	.146 (1.417)	.147 (1.484)	.147 (1.491)	.147 (1.432)	.146 (1.417)	.146 (1.425)	.149 (1.446)
업종 (서비스업=1)	.165* (1.670)	.166* (1.678)	.169* (1.642)	.164* (1.654)	.164* (1.662)	.171* (1.659)	.169* (1.642)	.170* (1.650)	.172* (1.675)
종업원 수 (1명~3명=1)	.078 (.794)	.079 (.798)	.077 (.745)	.083 (.844)	.084 (.848)	.077 (.753)	.077 (.745)	.077 (.749)	.078 (.760)
상수	3.282	3.298	3.344	3.345	3.362	3.377	3.344	3.360	3.411
R ²	.426	.428	.433	.436	.438	.437	.433	.435	.441
Adj R ²	.388	.390	.397	.396	.398	.401	.397	.399	.405
F-value (유의확률)	5.772 (.000)	5.801 (.000)	5.785 (.000)	5.818 (.000)	5.847 (.000)	5.842 (.000)	5.785 (.000)	5.813 (.000)	5.900 (.000)

주) *** p<.01, ** p<.05, * p<.10

바.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한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

본 연구는 전술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Hayes(2013)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15,000회 반복한 부트스트랩 표본의 편이수정 95%, 부트스트랩 신뢰구간 사용으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총효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모두 본 효과이며, 직접효과는 청년소상공인창업가의 창업동기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이다. 그리고 간접효과는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에 의한 효과이다. 본 연구의 검증 결과는 <표 12>와 같다. 간접효과는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야 유의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12>와 같이 창업동기와 창업의도 사이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검증 결과 유의하다. 이러한 결과는 각 변수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12>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에 의한 창업동기의 효과 검증

독립변수		Bootstrapping 추정치		Bootstrapping 95% CI	
		Boot B	S.E	LLCI	ULCI
창업동기 (기회동기)	총효과	.225	.031	.164	.286
	직접효과	.179	.031	.118	.240
	간접효과 ¹	.020	.005	.011	.031
창업동기 (성취동기)	총효과	.137	.030	.076	.197
	직접효과	.103	.027	.043	.162
	간접효과 ²	.006	.004	.009	.012
창업동기 (독립동기)	총효과	.133	.025	.055	.151
	직접효과	.114	.024	.060	.144
	간접효과 ³	.011	.006	.006	.020

주 1) 창업동기(기회동기)→자기효능감→창업의도

2) 창업동기(성취동기)→자기효능감→창업의도

3) 창업동기(독립동기)→자기효능감→창업의도

5. 시사점

가. 창업의도와 관련한 여러 이론이 주는 시사점

청년창업가를 양성해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려면 창업의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하나는 사회인지 속성을 예측인자로 활용해 창업의도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사회인지 속성이 무엇에서 비롯되는지 본질적 요인에 대한 접근으로 다룰 수 있다. 이는 사회인지이론과 도식이론(schema theory)을 기반으로 한다. 도식이론은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인지적 구조가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이론이다. 즉 사회인지 속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선행요인인 개인의 창업경험이 창업의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밝힐 수 있다. 창업의도는 창업행동에 선행하는 인지적 상태이다(Krueger et al. 2000). 창업동기를 지닌 청년창업가가 개인의 경험과 역량을 발휘해 인지적 상태의 창업의도를 도출한다. 다른 하나는 창업의도와 관련한 이론으로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Fishbein and Ajzen 1975), 지각된 행동을 통제변수에 포함한 계획적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Ajzen 1991) 등이 있다. 계획적 행동이론(TPB)은 한 개인의 창업행동 여부를 창업의도로 예측하고, 이 창업의도가 태도, 지각된 행동 통제, 주관적 규범 등 세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하는 이론이다. 본 연구는 기회 동기, 성취동기, 독립동기 등의 창업동기가 기업가정신의 발현, 창업능력이 확신이 있는 자기효능감 등 경로를 통한 매개역할, 창업교육의 조절효과 등으로 창업의도를 지니고 있음을 실증연구에서 밝혔다. 본 연구는 개인이 스스로 창업을 선택하는 미래의 계획이나 욕구 등 창업행동에 선행하는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나. 창업동기, 창업의도와 자기효능감이 주는 시사점

본 연구는 청년소상공인창업가의 창업동기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때 경로를 통한 기업가정신 및 자기효능감의 매개역할과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창업을 했거나 창업을 하려는 청년소상공인창업가에게 창업 성공에 접근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이하린·박윤희(2020)는 창업의도가 종속변수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창업의도가 종속변수로 사용될 때 많이 사용되는 독립변수는 창업교육, 주관적 규범, 태도, 지각된 행동 통제, 기업가정신, 창업효능감, 역할모델 관련 변수이다. 김춘호(2024)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혁신적 사고와 자기효능감은 서로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사회적 가치추구와 자기효능감도 서로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자기효능감을 개발하고 육성하는 정책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청년소상공인창업가의 기회동기, 성취동기, 독립동기 등 창업동기가 창업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때 경로를 통한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등 기업가정신 및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기업가정신과 자기효능감의 이중매개효과, 창업교육의 조절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이는 창업을 할 때 청년소상공인창업가의 개인역량이 중요하며, 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창업교육으로 형성하고 자기효능감을 극대화해 창업의도를 창업행동으로 옮기는 과정 또는 절차가 체계화되어 청년소상공인창업가의 성공하는 창업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청년소상공인창업가가 진입문턱이 낮은 식당 등을 개업해 손실을 보고 폐업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제조강국인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게 소상공인을 목표로 창업을 유도해야 한다. 일류경제 국가로서의 성공적인 진입을 위해 지역적 특성, 지역 인프라를 반영한 소상공인 대상 디지털 전환 지원체계 확립 및 혁신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체계 확립 및 혁신적 지원 방안 수립으로 디지털 국가 혁신에 일조해야 한다(허동현·윤병섭 2025).

VI.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소상공인창업가의 창업동기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때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대상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2024년도 청년예비창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프라인에서 기업생애주기별 역량 강화 교육을 할 때 교육받은 소상공인 청년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의 초기창업가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5점 등간척도를 사용한 설문조사는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설문지 400부를 배포하고 유효표본 289부를 최종 연구대상으로 확정하였다. 가설의 검증은 SPSS PROCESS Macro Model 1, Model 4, Macro Model 7(Hayes 2013)을 이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Baron and Kenny 1986)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간접효과(매개변수)의 유의성 검증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동기의 하위변수인 기회동기, 성취동기, 독립동기가 창업의도에 각각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조혜덕·조성제(2025)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창업동기의 하위변수인 기회동기, 성취동기, 독립동기가 자기효능감에 각각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예비청년창업가(19~39세)의 창업동기가 창업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힌 선량·허철무(2019)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둘째, 창업동기(기회동기, 성취동기, 독립동기)와 자기효능감 사이 창업교육의 조절효과가 각각 유의하였다. 양준환·김춘광(2020)은 창업교육이 매개변수인 창업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였다. 김철훈·윤병섭(2024)은 창업기회인식이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박시사·강성일(2007), Shinnar et al.(2014), 양준환·김춘광(2020), 김철훈·윤병섭(2024) 등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셋째, 창업동기와 창업의도 사이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각각 유의하였다. McGee et al.(2009)는 창업을 할 때 자기효능감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Zhao et al.(2005)는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제시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학습과 경험은 자기효능감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결국 개인의 창업의도를 높인다고 하였다.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창업의도가 높다는 주장이다. 본 연구는 Zhao et al.(2005), McGee et al.(2009) 등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넷째, 창업동기와 창업의도 사이 창업교육에 의해 조절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각각 유의하였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어떠한 위험에도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Boyd and Vozikis 1994) 창업의도를 높일 수 있다(Krueger, Jr. et al. 2000; 조한준 외 2020; 정행로·양동우 2021). 자기효능감의 선행변수로 Newman et al.(2019)은 창업교육을 들고 있으며, 결과변수로 Bagheri and Pihic(2014), Austin and Nauta(2016) 등은 창업의도를 들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먼저, 청년소상공인창업가의 창업동기와 창업의도 사이 이론적 시사점이다. 창업의도와 관련한 여러 이론은 사회인지이론과 도식이론(schema theory), 합리적 행동이론(Fishbein and Ajzen 1975), 지각된 행동을 통제변수에 포함한 계획적 행동이론(Ajzen 1991) 등이 있다. 창업의도가 태도, 지각된 행동 통제, 주관적 규범 등 세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하는 이론에서 본 연구는 기회동기, 성취동기, 독립동기 등의 창업동기가 창업능력에 확신이 있는 자기효능감 등 경로를 통한 매개역할, 창업교육의 조절효과 등으로 창업의도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창업 교과과정의 개발과 그 철학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으며, 창업의도와 창의적 사고, 그리고 혁신의 상호작용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청년소상공인창업가의 창업동기와 창업의도 사이 실무적 시사점은 창업동기, 창업의도와 자기효능감이 창업을 했거나 창업을 하려는 청년소상공인창업가에게 창업 성공에 접근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하는 시사점이 있다. 또한 청년소상공인창업가의 창업인식 전환이 주는 시사점, 창업교육의 초점과 실무적 적용이 주는 시사점을 통해 창업 및 혁신을 추구하는 사람, 실제로 사업 준비를 하거나 운영을 하지 않으나 잠재적인 창업가, 사업을 하려는 행동을 보이는 사람 또는 자영업을 할 수도 있는 잠재적인 기업가 및 기업 소유자에게 사업철학, 사업전략 등 경영에 대한 과정을 이해하고 이에 몰입하여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계가 있다. 청년창업가를 양성해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려면 창업의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다양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가 살펴본 변수는 창업의도, 자기효능감, 창업교육에 국한되었으나 사회인지 속성을 예측인자로 활용해 창업의도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미치는 여러 영향 변수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 연구는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인지적 구조가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영향을 주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해 청년소상공인창업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학문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본 논문은 사단법인 가족기업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강재학. 2016. 「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기업가정신이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기회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대학원.
- 김경희·김진영. 2011. “예비 서비스 창업자의 동기요인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사이버 대학교 수강자를 중심으로”. 「경영정보연구」, 제30권 제4호 : 511-537.
- 김기웅·박재성·김준엽. 2020.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촉진에 대한 연구: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영향요인 실태를 중심으로”. *KBR(Korea Business Review)*, 제24권 신년특별호 : 131-150.
- 김문성·박성철. 2011. “공무원의 자기효능감이 업무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5권 제4호 : 143-161.
- 김문성·이준우. 2017. “TEC 창업교육 만족도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창업자 역량의 조절효과”. 「한국창업학회지」, 제12권 제1호 : 310-334.
- 김상수. 2018. 「고학력 베이비붐 세대에게 사회적지지가 창업 기회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기업가정신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 김성순. 2009. 「한국과 중국의 잠재적 창업가의 창업의지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 김성희·엄기용. 2018.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직·간접 창업 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16권 제4호 : 1-21.
- 김양태. 2015. “반월공업단지 뿌리산업에 관한 사례연구”. 「대한경영학회지」, 제28권 제6호 : 1747-1763.
- 김용태. 2017. “창업교육, 기업가적 역량 및 태도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제13권 제4호 : 49-58.
- 김정인·이일한. 2014. “창업교육 서비스 품질이 자기효능감, 기대 성취욕구 및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쇼핑몰 창업교육을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제9권 제5호 : 21-31.
- 김정훈·성열홍. 2018. “도시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사례 연구-서울시 도시형 소공인을 중심으로”. 「상품문화디자인학연구」, 제55권 : 149-161.
- 김진욱. 201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들의 직무만족도와 근무여건 개선방안”. 「한국비교정부학보」, 제17권 제3호 : 389-418.
- 김철민·정중영. 2016. “도시형 소공인 개념, 현황 및 지원정책에 관한 소고”. 「중소기업연구」, 제38권 제3호 : 119-133.
- 김철훈·윤병섭. 2024. “예비소상공전문경영인의 창업교육서비스품질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창업기회인식과 자기효능감의 이중매개효과”. 「전문경영인연구」, 제27권 제3

호 : 127-156.

- 김춘근. 2015. 「창업지원시스템과 창업가역량이 초기 기술창업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
- 김춘호. 2024.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한국창업학회지」, 제19권 제3호 : 433-459.
- 나상균·김태호. 2014. “소상공인의 경영교육 서비스 품질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교육만족, 관계품질 및 재이용의도의 관계를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 제29권 제5호 : 167-187.
- 박지사·강성일. 2007. “개인특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여행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제31권 제2호 : 187-204.
- 박은주. 2012. 「대학생들의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박지유. 2014. 「창업가 특성과 사회적 자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멘토링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 박천수. 2013. 「박근혜정부의 청년창업 추진전략」. 이슈분석. 16-05-02. *The HRD Review*, 제16권 제5호 : 14-39.
- 백기동. 2014.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컨설턴트 및 컨설팅사 특성이 컨설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금오공과대학교 컨설팅대학원.
- 반성식·배근우·장성희. 2013. “개인발명가의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 창업동기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6권 제6호 : 2655-2677.
- 선량·허철무. 2019. “예비청년창업가의 창업동기가 창업기회역량에 미치는 영향: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지향성의 매개변수의 효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제14권 제1호 : 117-137.
- 안승권. 2016. 「창업교육과 제도적 지원이 자기효능감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안태욱. 2017. 「대학 창업교육의 창의성 역량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창업가정신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양준환·김춘광. 2020. “창업교육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창업자기효능감과 창업동기의 이중매개모형”. 「대한경영학회지」, 제33권 제3호 : 443-461.
- 양현봉·박종복. 2011.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방안」. 정책자료, 2011-159. 산업연구원.
- 유연호·양동우. 2008. “창업의지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경력지향성과 사회문화적요인 그리고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제21권 제5호 : 2247-2368.
- 윤남수. 2012. “잠재적 창업자의 창업동기 요인이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 「산업경제연구」, 제25권 제2호 : 1537-1557.

- 윤방섭. 2004. “창업의지의 결정요인: 개인특성 및 환경요인”. 『산학경영연구』, 제17권 제2호 : 89-110.
- 윤백중. 2012. 「대학생의 창업가정신과 창업동기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박사학위 논문.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 윤정호·정연대·김영수. 2018. “문래 기계·금속 집적지의 소공인 기술혁신을 위한 협업모델 및 사례에 관한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제13권 제6호 : 126-153.
- 이상길. 2018. 「직장인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 이시우·이현수. 2018.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분석 및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정책자금,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6권 제9호 : 39-49.
- 이우진·김진수. 2012. “대학의 창업교육 품질과 학생들의 직업선택 동기가 창업교육 만족도와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연구』, 제27권 제1호 : 1-23.
- 이윤숙·문성욱. 2016. “창업의 수, 생존율 및 고용 성장에 관한 고찰”. *KBR(Korea Business Review)*, 제20권 제2호 : 121-141.
- 이정원·이애주·김남현. 2013. “관광관련 전공 대학생들의 창업특성과 창업의도와의 관계: 개인적 환경요인의 조절효과”. 『관광레저연구』, 제25권 제2호 : 269-288.
- 이정하. 2024. 「창업멘토 리더십이 창업멘토링 기능과 창업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이지우. 2000. “개인특성과 창업의지 사이의 관계”. 『중소기업학회』, 제22권 제1호 : 121-146.
- 이하린·박윤희. 2020. “창업의도에 관한 통합적 문헌 고찰: 국내외 양적연구를 중심으로”, 『기업교육과 인재연구』, 제22권 제2호 : 257-295.
- 이혜진·김진수. 2019. “청소년 창업교육 프로그램 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창업인식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7권 제3호 : 13-23.
- 전덕영·윤병섭. 2020. “소상공인 보증지원이 일자리창출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금융연구』, 제40권 제4호 : 31-66.
- 정병현. 2015. 「공유리더십이 조직신뢰와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정연수·조동환. 2020. “대학생 창업의지 결정요인의 중요도 비교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제15권 제4호 : 145-165.
- 정영수·황주성. 2023. “서울시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의 특성요인에 따른 정책수단 차별화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26권 제3호 : 238-255.
- 정유선·정화영. 2018. “대학생들의 개인특성, 창업교육, 창업관련지식 및 창업의지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벤처창업연구』, 제13권 제6호 : 75-87.
- 정행로·양동우. 2021. “직장인의 창업생태계 인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창업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제34권 제7호 : 1149-1181.

- 조한준·최대수·성창수. 2020. “창업멘토링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사회적지지, 창업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벤처창업연구』, 제15권 제2호 : 81-96.
- 조혜덕·조성제. 2025. “중국 대학생의 창업동기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6권 제3호 : 266-274.
- 진주형·박병진. 2014. “역할모델 노출이 청년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창업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제36권 제4호 : 101-123.
- 최재성. 2014. 「창업자의 영입역량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 최태환·윤병섭. 2015. “지역소공인 육성 방안”. 『지역산업연구』, 제38권 제3호 : 135-167.
- 표한형. 2020. 「1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의 업종별·지역별 분포 특성과 경쟁력 분석」. 연구보고서, 정책연구 20-24. 중소기업연구원.
- 한가록·장유진·이재은. 2021. “창업교육의 전문성과 다양성이 창업동아리 구성원의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창업학회지』, 제16권 제1호 : 97-111.
- 허동현·윤병섭. 2025. “청년창업가의 개인역량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창업멘토링의 조절효과와 창업효능감의 매개효과”. 『상업경영연구』, 제39권 제3호 : 97-131.
- 황상규. 2013. “조직 내 기업가정신이 자기효능감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경남지역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제15권 제4호 : 345-356.
- 서울시 청년창업센터홈페이지(<http://2030.seoul.kr>)
- 서울신용보증재단(<https://www.seoulshinbo.co.kr>)
- 창업진흥원. 2020.12.30.. 「한눈에 보는 창업동향(창업·벤처 정책인식 실태조사)」. 보도자료. <https://www.kised.or.kr>.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 179-211.
- Austin, M. J. and M. M. Nauta. 2016. “Entrepreneurial Role-model Exposure, Self-efficacy, and Women’s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43(3) : 260-272.
- Bagheri, A. and Z. A. L. Pihie. 2014. “The Moderating Role of Gender in Shaping Entrepreneurial Intentions: Implications for Vocational Guidance”, *International Journal for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14(3) : 255-273.
- Bălăceanu, C. and D. Apostol. 2013. “The Concept of Entrepreneurship through Human Development Paradigm”. *Knowledge Horizons*, 5(1) : 61-66.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N.Y.: Freeman.
- Bandura, A.. 2006. “Guide for Constructing Self-Efficacy Scales”. In Pajares, F. and T. Urdan(eds.). *Self-Efficacy Beliefs of Adolescents*, Greenwich, C.T.: Information Age

Publishing..

- Baron, R. M. and 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 1173-1182.
- Bird, B. J.. 1988. "Implementing Entrepreneurial Ideas: The Case for Inten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3) : 442-454.
- Birley, S. and P. Westhead. 1994. "A Taxonomy of Business Start-up Reasons and Their Impact on Firm Growth and Siz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9(1) : 7-31.
- Boyd, N. G. and G. S. Vozikis. 1994.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on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Ac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4) : 63-77.
- Brockhaus, Sr. R. H.. 1982. "The Psychology of the Entrepreneur". In Kent, C. A., D. L. Sexton and K. H. Vesper(eds).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runo, F.. 1998. "The Fort Collins Virtual Business Incubator". *Public Management Review*, 80(3) : 10-14.
- Carsrud, A. L. and M. Brännback. 2009. *Understanding the Entrepreneurial Mind: Opening the Black Box*. New York, N.Y.: Springer.
- Carsrud, A. L. and M. Brännback. 2011. "Entrepreneurial Motivations: What Do We Still Need to Know?".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49(1) : 9-26.
- Carter, N. M., W. B. Gartner and P. D. Reynolds. 1996. "Exploring Start-up Event Sequenc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1(3) : 151-166.
- Chen, G., S. M. Gully and D. Eden. 2001. "Validation of a New General Self-efficacy Scale".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4(1) : 62-83.
- Cooper, A. C.. 1985. "The Role of Incubator Organizations in the Founding of Growth-Oriented Firm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1) : 75-86.
- Cooper, A. C. and F. J. Gimeno-Gascón. 1992. "Entrepreneurs, Processes of Funding, and New-Firm Performance". In: Sexton, D. L. and J. D. Kasarda(eds.). *The State of the Art of Entrepreneurship*. Boston: PWS-Kent Pub..
- Cooper, A. C., F. J. Gimeno-Gascón and C. Y. Woo. 1994. "Initial Human and Financial Capital as Predictors of New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9(5) : 371-395.
- Crant, J. M.. 1996. "The Proactive Personality Scale as a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4(3) : 42-49.
- Delmar, F. and S. Shane. 2003. "Does Business Planning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New Ventur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4(12) : 1165-1185.

- Ferreira, J. J., M. L. Raposo and R. G. Rodrigues. 2012. "A Model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An Application of the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Approaches".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19(3) : 424-440.
- Fishbein, M. A. and I. Ajzen.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 Gartner, W. B., B. J. Bird and J. A. Starr. 1992. "Acting as If: Differentiating Entrepreneurial from Organizational Behavior".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6(3) : 13-31.
- Gibb, A.. 2007. "Entrepreneurship: Unique Solutions for Unique Environments. Is It Possible to Achieve This with the Existing Paradigm?". *Senate Hall, Paper Presented,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5 : 93-142.
- Hallam, C. R. A., A. Leffel and D. Womack. 2008. "Influencing Entrepreneurial Intent for New Technology Intrapreneurs and Entrepreneurs in a University Environment". *IEEE Xplore, PICMET '08-2008 Portla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nagement of Engineering & Technology*, Cape Town, South Africa.
- Hamidi, D. Y., K. Wennberg and H. Berglund. 2008. "Creativity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15(2) : 304-320.
- Hay, M., L. W. Cox, P. Reynolds, E. Autio and W. D. Byarave. 2002.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Gem)-2002 Executive Report*, Kansas City, M.O.: Kauffman Center for Entrepreneurial Leadership.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N.Y.: Guilford.
- Hmieleski, K. M. and A. C. Corbett. 2006. "Proclivity for Improvisation as a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44(1) : 45-63.
- Imel, S.. 1989. *Entrepreneurship Education. Trends and Issues Alerts*. ERIC Clearinghouse on Adult, Career and Vocational Education, Columbus, Ohio.
- Kalleberg, A. L. and K. T. Leicht. 1991. "Gender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Determinants of Small Business Survival and Succes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4(1) : 136-161.
- Katz, J. and W. B. Gartner. 1988. "Properties of Emerging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3) : 429-441.
- Kraaijenbrink, J., A. Groen and G. Bos. 2010. "What Do Students Think of the Entrepreneurial Support Given by Their Univers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Small Business*, 9(1) : 110-125.
- Krueger, Jr., N. F.. 1993. "The Impact of Prior Entrepreneurial Exposure on Perceptions of New Venture Feasibility and Desirability, Entrepreneurships". *Theory and Practice*, 18(1) : 5-10.

- Krueger, Jr., N. F. and D. V. Brazeal. 1994. "Entrepreneurial Potential and Potential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3) : 91-104.
- Krueger, Jr., N. F. and A. Carsrud. 1993. "Entrepreneurial Intentions, Apply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Entrepreneurship and Regional Development*, 5(4) : 315-330.
- Krueger, Jr., N. F., M. D. Reilly and A. L. Carsrud. 2000.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5-6) : 411-432.
- Kuratko, D. F.. 2005. "The Emergence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Development, Trends, and Challenge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9(5) : 577-597.
- Locke, E. A. and G. P. Latham. 2004. "What Should We Do About Motivation Theory? Six Recommendation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9(3) : 388-403.
- Mathieu, J. E., S. I. Tanneunbaum and E. Salas. 1992. "Influence of Individual and Situational Characteristics on Measures of Training Effectivenes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5(4) : 828-847.
- McGee, J. E., M. Peterson, S. L. Mueller and J. M. Sequeira. 2009.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Refining the Measur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3(4) : 965-988.
- Mehrotra, S. J., R. Chaudhary and H. Gupta. 2018. "The Banking Opportunity in Micro and Small Enterprise Sector". *Journal of Applied Management-Jidnyasa*, 10(1) : 92-108.
- Morris, M. H. and D. L. Sexton. 1996. "The Concept of Entrepreneurial Intensity: Implications for Company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36(1) : 5-13.
- Nayak, P., B. Das and J. K. Panigrahi. 2018. "Intent of Technology, Innovation and Value Creation for Start-up Entrepreneurs". *International Journal of Mechanical Engineering & Technology*, 9(2) : 629-636.
- Newman, A., M. Obschonka, S. Schwarz, M. Cohen and I. Nielsen. 2019.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on Its Theoretical Foundations, Measurement, Antecedents, and Outcomes, and An Agenda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10(B) : 403-419.
- Nunnally, J. C. and I. H. Bernstein. 1994. *Psychometric Theory*, New York, N.Y.: McGraw-Hill.
- Piperopoulos, P. and D. Dimov. 2015. "Burst Bubbles or Build Steam? Entrepreneurship Educati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53(4) : 970-985.
- Raijman, R.. 2001.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Mexican Immigrants in Chicago". *Journal of Socio-Economics*, 30(5) : 393-411.
- Rantanen, T.. 2013. "Students' Attitudes Towards Entrepreneurship in Uusimaa Region in

- Finland”. *Interdisciplinary Studies Journal*, 2(4) : 48-65.
- Rees, H. and A. Shah. 1986. “An Empirical Analysis of Self-employment in the U.K.”.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1(1) : 95-108.
- Ryan, R. M. and E. L. Deci.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 68-78.
- Sandberg, W. R. and C. W. Hofer. 1987. “Improving New Venture Performance: The Role of Strategy, Industry Structure, and the Entrepreneur”.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1) : 5-28.
- Saidu, S.. 2019. “CEO Characteristics and Firm Performance: Focus on Origin, Education and Ownership”. *Journal of Global Entrepreneurship Research*, 9(1) : 1-15.
- Scheinberg, S. and I. C. MacMillan. 1988. *An 11 Country Study of Motivations to Start a Business*, Babson College Entrepreneurship Research Conference, Babson College, M.A.: Wellesley.
- Shane, S.. 2009. “Why Encouraging More People to Become Entrepreneurs is Bad Public Policy”. *Small Business Economics*, 33(2) : 141-149.
- Shane, S., E. A. Locke and C. J. Collins. 2003. “Entrepreneurial Motivation”.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13(2) : 257-279.
- Shinnar, R. S., D. K. Hsu and B. C. Powell. 2014. “Self-Efficacy,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Gender: Assessing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Longitudinally”.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Education*, 12(3) : 561-570.
- Smith, N. R. and J. B. Miner. 1983. “Type of Entrepreneur, Type of Firm, and Managerial Motivation: Implications for Organizational Life Cycle Theory”.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4(4) : 325-340.
- Sobel, R. S. and J. C. Hall. 2008. “Institutions, Entrepreneurship, and Regional Differences in Economic Growth”. *American Journal of Entrepreneurship*, 1(1): 69-96.
- Timmons, J. A. and S. Spinelli, Jr.. 2008.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8th eds.), Illinois: McGraw-Hill.
- Timmons, J. A., D. F. Muzyka, H. H. Stevenson and W. D. Bygrave. 1987. “Opportunity Recognition: The Core of Entrepreneurship”. N. C. Churchill et al.(eds.),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Babson College, M.A.: Wellesley.
- Tran, A. T. and H. Von Korflesch. 2016. “A Conceptual Model of Social Entrepreneurial Intention Based on the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Asia Pacific Journal of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10(1) : 17-38.
- Walter, S. G. and J. H. Block. 2016. “Outcome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31(2) : 216-233.

- Wilson, F., J. Kickul and D. Marlino. 2007. "Gender,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s: Implications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1(3) : 387-406.
- Wu, S. and L. Wu. 2008. "The Impact of Higher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University Students in China".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15(4) : 752-774.
- Zhao, H., S. Seibert and G. Hills. 2005. "The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in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0(6) : 1265-1272.

The Effect of Entrepreneurial Motivation of Young Small Business Entrepreneurs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Heo, Dong-Hyun* · Oh, Hyun-Ju**

— <Abstract>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when the entrepreneurial motivation of young small business entrepreneurs affects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Design/Methodology] From May 1 to June 30, 2025, the Seoul Credit Guarantee Foundation surveyed young prospective entrepreneurs of small business owners or early entrepreneurs under three years of founding and analyzed 289 effective samples.

[Findings] First, it was revealed that opportunity motivation, achievement motivation, and independence motivation, which are sub-variables of start-up motivation, have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start-up intention, respectively. In addition, it was revealed that opportunity motivation, achievement motivation, and independence motivation, which are sub-variables of start-up motivation, have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self-efficacy, respectively. Second, the moderating effect of start-up education between start-up motivation and self-efficacy was significant. In additi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controlled by start-up education between start-up motivation and start-up intention was significant.

[Research implications] This study suggests that entrepreneurship motives, such as opportunity motivation, achievement motivation, and independence motivation, are affecting entrepreneurship intentions through the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that is confident in entrepreneurship ability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This suggests that it is important for young small business entrepreneurs to have the confidence to respond confidently in various situations, and tha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management, such as business philosophy and business strategy, which are required to explore ideas and establish and operate business plans through entrepreneurship education. Future research determines whether entrepreneurship, formed based on individual experience and knowledge, affects understanding and interpreting new information, empirically analyzes the mediating role of entrepreneurship and draws its implications to strengthen academic support for young small business entrepreneurs to succeed.

<Key Words> Young Small Business Entrepreneurs, Entrepreneurial Motivation, Self-Efficacy, Entrepreneurship Education, Entrepreneurial Intention

* Ph.D., CEO, Sun Jin E&S Co., Ltd. First Author (ceodhheo@naver.com)

** Professor, Keimyung College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ohj430@kmcu.ac.kr)